

#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特性和 課題

우리나라의 石油産業은 지난 64年 大韓石油公社의 蔚山精油工場이 稼動을 개시한 이래 눈부신 成長과 發展을 거듭하여 오늘 날에는 施設容量이 当初의 日當 3만 5천배럴에서 무려 22.5倍인 日當 79만배럴의 規模를 자랑하면서 우리나라 基幹産業群의 隊伍에 當당한 一員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 동안 国内 精油会社의 數도 5개로 늘어 났고, 各種石油製品이 모든 産業의 動力源이나 原料로, 그리고 国民生活의 燃料源으로 全国坊坊曲曲에 원활히 輸送·供給되면서 經濟發展의 가장 중요한 原動力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0年의 경우, 石油은 우리나라 全体에너지供給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石油類製品의 總売上額은 2兆원을 상회했다. 이는 同年 GNP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 原油輸入額은 80년도에 56억달러로서 총수입액의 31%, 총수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原油輸入額이 약70억달러에 이를 展望이다.

이와 같이 精油産業은 8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景氣沈滯와 에너지節約에 따른 石油類 需要減退로 經營惡化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經濟에서 차지하는 位置와 比重은 確固不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처럼 華麗한 經歷을 자랑하며 威風當당한 듯이 보이는 우리나라의 石油産業도 内面에 있어서는 많은 難題를 안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반적인 經營惡化에서 비롯된 重病의 前驅症狀마저 보이고 있다. 石油産業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原因에 관

해서는 그동안 많은 識者와 專門家의 허다한 分析과 糾明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再論을 피하고, 여기서는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위치와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同産業이 안고 있는 課題에 대한 一部 解答과 一部 症狀에 대한 処方을 試圖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石油産業은 그 주어진 位置로 볼 때, 嚴然한 內需産業-輸出産業에 對比하여-이라고 볼 수 있다. 石油産業은 그 成立目的이나 發展過程, 그리고 他産業과의 關聯에서 본 特性등 그 어느모로 보나 典型的인 內需産業이며, 동시에 他産業에 대해서는 從的인 위치에 서는 産業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蔚山精油工場이 건설된 背景에는 당시 정부가 立案한 的인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目標達成을 위하여는 저렴하고 安定的인 에너지供給이 絶對불가결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 60年代와 70年代를 거치며 누린 石油産業의 급성장은 그 동안의 高度成長에 힘입은 결과로써 이 기간중에 이루어진 電力産業을 비롯한 시멘트, 鐵鋼, 肥料, 石油化学工業등 에너지多消費型 重化学工業의 신설 또는 확장, 그리고 国民생활향상에 따른 에너지수요증대에 石油産業은 安住해 왔다. 石油産業은 에너지供給産業이란 특성때문에 수동적으로 他産業發展에 필요한 動力源을 공급하고, 安락한 住居生活에 필요한 溫冷房에 직·간접으로 연료와 動力을 제공하고, 交通수단의 動力源에 그칠 뿐, 능동적으로 스스로 需要를 創出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石油産業은 輸出産業의 힘찬 驅動力의

역할은 담당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스스로 輸出産業이 될 수 없는 內需産業이며, 他産業의 從屬産業인 것이다.

이상의 考察에서 얻어지는 結論은 우리 나라의 石油産業이란 任意로 수요를 創出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産業이며, 景氣변동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을 全面的으로 받을 뿐, 어느 특정산업과 결탁 또는 제휴하여 不況을 극복하거나 好況을 누릴 수 없는 産業이며, 또 그 자체시설만으로는 수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共産品이나 併産品을 생산하여 마치 「비오면 우산장사, 개이면 나막신장사」 式의 經營을 할 수도 없는 産業이란 点이다.

다시 말하면, 그 売出額이 엄청나고, 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比重과 영향력이 크지만, 行動의 自由나 選択의 幅은 극히 적은 산업이 곧 石油産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看過해서는 안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石油産業은 첫째로 原料인 原油를 全量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원료구입에 있어서 裁量權行使나 安全率(國內生産分)이 전혀 없는 반면, 그 제품은 거의 완전한 國際商品이라는 점이며, 둘째로 우리나라의 石油産業은 石油事業法 등에 의해 정부의 완전한 統制下에 있다는 点이며, 셋째로 石油産業은 엄청난 資金이 所要되는 裝置産業이며, 엄청난 物量을 다루기 때문에 막대한 運營資金이 소요되는 반면, 薄利多売가 강요되는 低收益性의 産業이라는 点이다. 결국 石油産業이란, 특히 우리나라의 그것은 스트레이트·자케에 묶여 있는 「愚鈍한 巨人」과 같은 存在이다.

그럼 그 우둔한 巨人이 지난 날에는 어떻게 好況을 누리며, 成長하여 왔는가? 그것은 第1次 石油波動 이전까지만 해도 原油값이 워낙 저렴하여 에너지費用이 他産業의 原價에 미치는 영향이 輕微하여 精油会社가 상당한 수준의 利潤을 販賣價에 포함시켜도 그것이 顯示되지 않아, 精油会社들은 그 이윤

의 상당부분을 정유시설의 확장에 재투자할 수 있었으며, 70년대말까지는 國內外的 好況에 힘입어 薄利多売중에서도 건전한 발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우리나라 石油産業은 赤字經營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대로 放置할 경우 치명적인 重病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는 형편이 되었다.

여기에 그 對策 몇가지를 提示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石油産業은 農業, 시멘트, 비료 건설사업등과 같이 중요한 內需基幹産業이라는 인식 하에서 이 산업을 정부의 充分하고도 適切한 감독과 지도하에 두되 自律的 運營을 최대한 보장하고,

둘째, 電力事業과 國內石炭산업을 제외한 他에너지産業, 즉 石炭 및 LNG 등의 輸入과 國內供給에도 참여케 하여 에너지産業合理化의 役軍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代替에너지開發, 海外原油開發, 油類의 輕質化 및 公害防止대책강구에도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正常化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石油類價格의 正常化 내지는 引上과 그 引上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稅制의 조정, 그리고 精油会社들이 精油部門 이외의 기타에너지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등 一連의 조치가 先行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당분간은 原油보다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輸入石炭이나 LNG가격을 石油類가격과 連動시킴으로써 原油價상승에서 오는 國內石油類價格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역시 에너지價格은 계속 上昇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所要에너지의 대부분 - 原油든, 石炭이든, LNG 든간에 - 거의 全量 해외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産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高에너지價에 견딜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개선과 개편 그리고 省力化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咸 秉昭·大韓石油協會副會長)